# 한파에 백화점 "하하하"

## 의류·방한용품 불티…3社 세일매출, 평균 9% 늘어

불황으로 고전하던 지역 백화점들이 추운 날씨 덕분에 11월에 이어 '겨울 정기세일'에서도 선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겨울정기세일에는 지난해보다 평균 5℃ 이상 낮은 추위가 이어지면서 겨울의류 등 방한용품 매출이 급증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9일까지 실시한 겨울 정기세일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5% 가량 늘었다. 이는 롯데가 올해 5차례(1, 4, 7, 10, 12월) 진행한 정기세일 중 가장 좋은 실적이다.

창립기념 행사(11월4~13일)가 있었던 지난 11월달에도 매출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약 25%나 늘어나는 등 매출이 호조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처럼 백화점 매출이 살아난 것은 겨울 한파 영향으로 11월 이후 백화점 주력인 패션 상품군의 매출이 회복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의 매출 증가는 패딩점퍼와 아웃도어 제품이 견인했다. 패딩점퍼가 큰 인기를 끌면서 아웃도어 상품군 매출이 71%나 급등했고 모피도 잘 팔리면서 27% 증가율을 기록했다. 발열내의도 한 달 사이 매출이 40% 가량 늘었다.

전기매트 등 난방용품 수요가 늘면서 가전·가구 상품군 매출도 22% 늘었다.

겨울 시즌 상품 매출이 늘면서 구두·부츠(18%), 스포츠(15%), 영캐주얼(14%), 패션잡화(8%) 상품군도 매출이 증가했다.

광주신세계백화점은 같은 기간 매출이 약 2% 소폭 신장하는데 그쳤다.

지난해 실적 호조에 따른 기저효과로 매출액 증가율은 크지 않았지만 매출액 규모로 살펴보면 좋은 실적을 거둔 것이라고 백화점 측은 설명했다.

한파 영향으로 머플러, 장갑, 패딩부츠 등 수요가 증가하면서 패션잡화 매출이 20% 증가했다.

또 패딩점퍼를 비롯해 겨울 스포츠 시즌을 맞아 일반 스포츠 용품 판매가 늘면서 스포츠·아웃도어 상품군 매출도 15% 늘었다.

추운 날씨로 외식 대신 집에서 식사하는 고객이 늘면서 식품 부문 매출도 9% 늘었다.

현대백화점도 12월 송년세일 기간 지난해 겨울세일보다 전국 14개 점포 기준 10.3% 매출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세부 품목으로는 모피 판매 호조의 영향으로 여성의류가 29.2% 매출 증가율을 보였고, 남녀 아웃도어 의류도 49.4% 매출이 늘었다.

지역 백화점업계 관계자는 "지난해는 이상고온으로 겨울 패션상품이 잘 안팔렸지만 올해는 때이른 한파로 겨울 상품이 상대적으로 많이 팔리면서 매출 실적이 좋았다"면서 "크리마스 사은행사를 비롯해 겨울 상품전이 내년 1월까지 이어지고 '대선특수'가 있기 때문에 매출 신장세는 연말까지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투표로 말하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대선 투표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임직원들이 오전·오후 교대 근무 등 '출근시간 자율제'를 시행한다. 사진은 롯데백화점 광주점과 동구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참여 독려를 위한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 〈롯데백화점 광주점 제공〉

# 한국 2년 연속 무역 1조달러

우리나라의 무역액이 2년 연속 1조달러를 넘어섰다.

지식경제부는 10일 관세청 신고 기준으로 오전 11시6분에 수출 5128억1800만달러, 수입 4871억8200만달러를 기록해 올해 무역액이 1조달러를 넘어서게 됐다고 밝혔다.

무역수지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256억36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한국은 올해 글로벌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8대 무역국으로 부상했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세계교역이 감소했으나 2년 연속 무역 1조 달러 달성은 큰 의미가 있다고 지경부는 전했다.

반면 주요 무역 국가들의 교역량은 올해 2분기부터 감소세를 보였다.

미국, 중국을 비롯한 주요 70개국의 교역증가율은 4월 -1.2%를 기록한 뒤 6월 -3.6%, 8월 -5.8% 9월 -3.7% 줄어들었다.

독일, 일본, 프랑스,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의 수출도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주요국 수출증가율을 보면 독일과 프랑스가 각각 5.1%, 5.3% 줄어든 것을 비롯해 대만(-3.9%)과 일본(-0.5%)도 감소세를 면치 못했다.

/연합뉴스

# 소비자 피해 사이트 내년부터 강제폐쇄

## 공정위, 처벌 강화

사기 등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인터넷사이트를 정부가 내년부터 임시로 폐쇄할 수 있게 된다. 사업자의 소비자에 대한 위법행위 처벌도 대폭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3년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 시행키로 했다.

소비자정책 종합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단체 등의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됐다.

공정위는 소비자와의 거래에서 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위반시 제재 내용을 담은 '소비자거래법'을 제정키로 했다. 이는 표시광고법, 약관법 등 현행 소비자 관계법률로 규율되지 않는 사업자의 부당행위를 제재하려는 것이다.

사업자 제재로는 계약 취소·손해배상 등 민사적 구제와 과징금 등 행정적 제재, 징역 등 형사적 제재가 규정된다. 사기 인터넷사이트나 소비자를 속이는 전자상거래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임시중지명령제'도 도입한다.

/연합뉴스

# 카드 양극화

## 일반카드 부가혜택 반토막…VVIP는 그대로

카드사들이 경영난을 이유로 일반 신용카드의 부가 서비스를 절반 이상 줄이고 있으나 초우량고객(VVIP) 카드는 여전히 파격적인 혜택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부유층 카드는 연회비보다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더 많아 적자가 불가피해 일반 카드 고객들이 고스란히 부담을 떠안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1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신한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 롯데카드, 하나SK카드, 비씨카드 등 카드사들은 연회비 100만원 이상의 VVIP 카드의 부가 혜택을 줄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KB국민카드만 내년 1월부터 '태제스카이패스카드'와 '태제 토탈마일카드'의 마일리지를 축소하고 간호사 방문 통합의학 검사권을 제공하지 않기로 한 정도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논의가 불거진 지난해 상반기부터 카드사들이 일반 카드의 부가 혜택을 50% 이상 줄인 것과 대조되는 모습이다.

국내 출시된 VVIP카드는 현대카드 '더 블랙', 삼성카드 '라움 0', 롯데카드 '인피니트', KB국민카드 '테제', 하나SK카드 '클럽원', 신한카드 '프리미어' 등이 있다. '더 블랙'과 '클럽원', '라움 0'은 연회비가 200만원이다.

VVIP의 부가 서비스는 상상을 초월한다. 200만원의 연회비를 내면 부가 혜택을 최대 1000만원 이상 공짜로 이용할 수 있다.

대한항공 등을 탑승 시 1등석으로 올려주거나 미국행 비행기 탑승 시 동반자 무료 비즈니스석 항공권을 제공한다. 특1급 호텔 객실 할인권, 최고급 스파 이용권, 아이패드나 아이폰도 공짜로 받을 수 있다. 에르메스 등 명품도 할인해주며 대학병원 무료 건강검진권, 요트 대여, 여행 시 렌터카 서비스도 제공한다.

카드사들은 VVIP 카드로 연간 100억원대 적자를 보지만 부유층 유치를 위해 해당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통 식문화로 건강 지키고 환경 살리고

## 농수산식품유통公 '녹색 식생활 캠페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재수)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함께 환경·건강·배려의 녹색 식생활 실천과 식생활 교육의 중요성을 알리는 '녹색 식생활 초록입술 캠페인'을 진행한다.

녹색 식생활 초록입술 캠페인은 '하루 3끼 나를 위한 초록약속'을 슬로건으로 환경과 건강을 지키고 생산자를 배려하는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는 국민 참여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은 '환경 친화적인 우수 농산물 이용하기(환경)', '우리 밥상 즐겨먹기(건강)', '하루에 한 번 이상 가족과 식사하기(배려)'를 녹색 식생활을 위한 3가지 실천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전개한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는 이를 위해 리듬체조 국가대표 손연재 선수를 녹색 식생활 홍보 모델로 선정했다.

손 선수는 초록입술 캠페인 광고와 홍보 영상, 프로모션 참석 등을 통해 녹색 식생활을 보다 친근하고 자연스럽게 국민에게 알리는 캠페인 활동에 나선다.

한편, 지난 3일부터는 온라인과 SNS를 통해 녹색 식생활 실천 서약에 동참할 수 있는 '초록입술 약속하기 릴레이 캠페인'도 펼쳐지고 있다. 참여는 녹색 식생활 캠페인 블로그(blog.naver.com/greentable1)와 페이스북(www.facebook.com/ greentable114)에서 할 수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대출금리·보험금 민원 급증

## 9월까지 7만2천건 전년보다 19% ↑

올해 들어 대출금리나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민원이 급증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1~9월 접수된 금융민원이 7만17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6만239건) 보다 1만1469건(19.0%)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은행·비(非)은행권에선 대출금리를 내려달라고 요청하거나 채권추심에 불만을 제기하는 등 여신 관련 민원이 2141건(35.3%) 늘어난 8211건 접수됐다.

'저축은행 사태' 여파로 후순위채권 불완전판매 관련 민원과 연회비 부당청구 등 신용카드 관련 민원도 31.1%와 32.3% 각각 늘었다.

보험권에선 보험금을 더 달라는 요지의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이 9691건 들어왔다. 지난해보다 3642건(60.2%)이나 증가했다.

이미 계약한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돌려달라는 요청 등 보험모집 관련 민원(9920건)도 40.5% 늘었다.

금융투자 쪽에선 수익증권과 주식매매 관련 민원이 많아 국내외 증시 부진의 영향을 반영했다.

햇살론·새희망홀씨 등 서민금융 상품의 대출 기피·거절, 자동차 할부금융 금리, 실손의료보험료 할증, 텔레마케팅 보험 판매 관련 민원도 많았다..

/연합뉴스